



유지태



우도환

티파니·수영·서현 SM 떠나지만 “앞으로도 소녀시대”

8인 멤버 완전체 활동은 힘들듯

소녀시대의 티파니, 수영, 서현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2세대 걸그룹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이미 가요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카라, 포미닛, 레인보우, 투애니원, 원더걸스, 씨스타 등 2세대 걸그룹이 해체했고 2010년대 중반 등장한 트와이스, 여자친구, 우주소녀, 러블리즈, 구구단 등 3세대 걸그룹이 득세한 상황으로 변화했지만 올해 10주년을 맞은 소녀시대는 해외에서 K팝 한류를 이끈 2세대 대표 걸그룹의 명맥을 이어왔다.

SM은 소녀시대가 해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으나 태연, 윤아, 유리, 써니, 효연 등 다섯 멤버만 재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8인 체제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특히 2007년 9인조로 데뷔해 2014년 9월 제시카가 이미 탈퇴했기에 절반 가까운 4명이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멤버들은 지금까지 8인 체제로 함께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는 나고 자란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고 수영과 서현은 소속사가 바뀔 예정이니 사실상 이들의 팀 활동은 불가능해진다.

소녀시대의 경우 10년간 팀을 지켰지만, 보통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7년 전속계약 만료 시점을 기해 팀을 해체하거나 완전체가 깨지는 것은 이제 아이돌 그룹의 자연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8년 SM에서 데뷔해 이후 자신들이 회사를 만들어 데뷔 19주년을 맞은 최장수 그룹 신화도 특별한 케이스다.

완전체로 정수하는 그룹이 나오기 어려운 가장 큰 배경은 1세대와 달리 2세대부터 개별 활동이 본격화된 데 있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활동”이라며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각기 재능에 따라 솔로 가수, 연기자, 예능인으로 아이돌 이후의 진로를 정하게 된다. 처음엔 회사의 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 활동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재능을 알아가게 된다. 또 7~10년 정도 활동하면 나이도 30대 안팎이 돼 스스로 아이돌 생명력의 한계를 느끼니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획사 본부장은 “배우로도 활약하며 스타성이 큰 멤버는 광고까지 휩쓰니 팀 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그렇지 못한 멤버들은 팀 활동이 이들로 인해 더더지는 것에 불만을 품는다. 그러면서 견제자가 생겨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약자들 속도 시원해질 ‘사이다’ 드려요”

“현실에서는 보험범죄 이야기라고 하면 답답한 점이 많지만, 드라마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드릴 것입니다.”

11일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수목극 ‘매드독’에서 사설 보험범죄 조사팀 ‘매드독’의 팀장 최강우를 연기하는 배우 유지태(41)는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극 중 강우는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지지 않는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보험 조사 업계에서는 드라마 제목처럼 ‘미친개’로 통한다. 과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 활동을 했지만,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후부터는 보험 사기꾼들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지태는 자신의 캐릭터를 “유쾌, 통쾌, 발랄한 팀장”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부조리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기꾼을 잡으려고 ‘매드독’을 만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는 “항공기 추락사고가 주를 이루는데 그 안에 보험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담긴다. 그 안에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태는 그러면서 “배데랑인 강우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속속들이 파헤쳐지면서 내용상으로도 액션으로도 사이다 같은 장면이 많이 포진될 것이다. 약자들의 속도 시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작 ‘굿 와이프’에서 얻은 ‘쓰라꾼’(쓰레기+사랑꾼) 이미지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좀 벗어나

KBS 새 수목 장르극 ‘매드독’

유지태·우도환·류화영 등 출연

아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매드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새롭게 연고 싶은 수식어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꼽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모습이 연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드독’은 생활밀착형 범죄부터 인면수심 강력범죄, 가족 공모 조직범죄 등 온갖 보험범죄에 포커스를 맞춘 장르극이다. 현실성뿐만 아니라 휴머니즘도 가미해 짜릿한 재미와 더불어 감동도 잡겠다는 게 제작진의 포부다.

황의경 PD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가 결합해 빛어지는 비극 속에서 악의 근원에 대응하는 영웅들에 대한 판타지”라며 “이제는 지상파에서도 장르극을 다루는 데 대한 장벽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매드독’에서 진짜 얼굴을 숨긴 거리의 사기꾼 김민준을 연기하는 배우 우도환(25)은 최근 인기를 실감하는 나라는 물음에 속수무책이라며

“인기를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지만,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극 중 민준은 수역의 보험금을 남기고 죽은 형의 비밀을 풀기 위해 속내를 숨긴 채 최강우(유지태 분)가 이끄는 사설 보험범죄 조사팀 ‘매드독’에 합류한다.

우도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아로 자라 양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거리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어느 날 형이란 사람을 만나지만, 그마저도 사고로 잃게 되는 아픔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많은 관심 속에 종영한 OCN 주말극 ‘구해줘’ 등을 통해 주목받는 신예로 부상한 우도환은 이번 ‘매드독’을 통해 ‘대세 군기’에 들어간다.

그는 함께하게 된 선배와 동료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읊으며 “조재운 선배님과 전작 ‘구해줘’에서도 만났지만 이번엔 또 다른 모습이어서 기대가 된다. 유지태 선배님은 평소 예뻐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지태와의 ‘브로맨스’(남자들 간 친한 우정)가 기대된다는 이야기에 그는 “저 역시 영광이고 많이 기대된다”고 맞장구를 쳤다.

KBS 2TV 주말극 ‘아버지가 이상해’와 JTBC ‘청춘시대’ 등을 통해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류화영(24)은 ‘매드독’의 홍일점 정하리 역을 맡았다.

류화영은 “아직 인기가 몸에 와 달지는 않는다”며 “열심히 배우면서 연기하는 비타인 같은 배우가 되겠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지태와 우도환, 류화영 외에 조재운, 김혜성, 정보석, 홍수현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추석기획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병원선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감성thon 고맙습니다 2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25 특선다큐 비만의 오해와 진실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조립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가요무대(재)	30 영상앨범 산(재)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5 프리파라 2	55 닥터 365
2	5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생활의 발견(재) 50 자동차공백상 위기 2	55 MBC 파워대거전	00 뉴스브리핑
3	10 나는 농부다 시즌3(재)	20 TV유치원 50 여유만만	55 별별머느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재)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톤에이지 3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러다 55 지식 총조립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재)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2017 KBS 대기록 순례 4부작			
10	35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5 문화의 향기 55 동행 (재)	10 1%의 우정(재)	1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 싱글 와이프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들 찾아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 역만장자〉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조림과 황태채볶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뽀뽀 뽀로로 08:00 뽀뽀뽀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나노 08:45 한글이 아호2 09:00 레이디비디 09:30 플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선(재) 13:40 미래강연 Q (교육혁명 미래르바 스쿨)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러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한글이 아호 2(재) 16:45 뽀뽀뽀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재) 17:45 뽀뽀뽀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만에 대하여 멕시코 3부 맛에 취하고 향기에 취하고〉 21:30 한국기행 〈소읍기행 3부 결어야 보인다〉 21:50 EBS 다큐프라임 〈남부 3부 자유의 수, 엑스〉 22:45 국한직업 〈가을, 만선(滿鮮) -갈치와 아귀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교육혁명 미래르바 스쿨〉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8월 22일 辛未)

子	48년생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60년생 주재적 관련이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72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84년생 동기를 부여하는 기분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01, 08	午	42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지 말자. 54년생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할 것이다. 66년생 제게 맡긴 것을 잘 실행하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78년생 기색이 보이면 즉시 조치하자. 90년생 방만하게 거나 무관심 한다면 성실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4, 21
丑	49년생 당시에겐 엉겁결에 행하고 말았다가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61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73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으니 판단을 잘 해야겠다. 85년생 가벼운 조처가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51, 63	未	43년생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니 맞이할 체비를 다하라. 55년생 주안대 임해도 된다. 67년생 제사 덕분에 이밥을 먹는 격이로다. 79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91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88, 73
寅	50년생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세밀한 시각으로 정차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방심하다가가는 상대로부터 이용당할 수도 있다. 86년생 상당한 고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0, 06	申	44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56년생 위험 요소를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68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80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후 에만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2, 27
卯	51년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63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행국이 상당한 기간 나타날 것이니라. 75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거주장소위해지겠다. 87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로다. 행운의 숫자 : 28, 62	酉	45년생 대화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57년생 지난날의 부실함을 만회하게 되는 쾌거가 있는 날이 될 것이다. 69년생 희망의 물꼬를 트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81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6
辰	52년생 시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64년생 생각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리라. 76년생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88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1, 94	戌	46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국상이니 변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58년생 결과는 볼을 보듯 뻔하다. 70년생 대체로 양호한 형태를 띠겠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82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64, 90
巳	53년생 일의 선수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65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77년생 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해야만 후유증이 없다. 89년생 흩어져 있는 것은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26, 14	亥	47년생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불시에 문제가 생긴다. 59년생 방향과 방법의 선택이 감흥을 좌우하리라. 71년생 징후가 현실화 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83년생 요망보다 고 달리는 것이 상책이로다. 행운의 숫자 : 99, 5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